

현대 한국 불교의 대중화 운동 -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을 중심으로 -1)

지혜경
연세대학교

국문초록

불교의 대중화 노력은 개신교가 한국에 전래된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다. 근대시대에는 백용성, 한용운, 소태산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한글경전의 출판, 참선공부의 확대, 대중의 삶에 맞는 불교의식의 개혁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근대시대의 대중화 노력은 해방 이후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에게서 계승되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인간 긍정의 불성사상, 쉬운 염불수행, 재가자와 출가자의 평등성, 더 나은 사회의 건설이라는 네 가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월조사는 대중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관음염송의 수행법을 제시하였고, 재가자와 출가자에게 똑같이 십선계를 수계하는 방식을 통해 승려들과 재가자의 간극을 줄였다. 광덕스님은 대중들이 불교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불광』 잡지를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불광법회를 개최하였고, 재가자들에게도 포살법회참여, 불교의례 주재 등의 권한을 주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불교는 대중을 위한 불교에서 대중에 의한 불교로 바뀌어왔다.

1) 본 논문은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제 3회 온라인 국제학술세미나(주제: 동체대비와 불교공동체, 2024년 1월 12일)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거하여 구성한 것이다.

1. 들어가며

한국불교에서 불교의 대중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이 때 불교의 선지식들은 불교가 어떻게 하면 대중의 선택을 받는 종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되었다. 굳이 이 시대에 이런 고민이 시작된 이유는 기독교의 전래, 일본불교의 포교활동, 그리고 사회진화론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항 이후,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 1877년에는 일본 불교 진종이 부산의 포교소를 설치한 뒤, 다양한 사회사업을 하며, 불교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와 일본불교가 ‘포교’라는 개념을 통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흐름에 맞춰 진화한 문명만이 살아남는다는 사회진화론 사상은 불교지식인들에게 불교가 도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불교, 기독교, 신도만을 공식 종교로 인정하여 포교를 허락하면서, 세 종교 간의 포교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교의 선각자들은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대중을 위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을 제안했다.

당시 대중화운동의 선봉에 섰던 백용성, 한용운, 소태산의 사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불교가 미래의 사상으로 뛰어나지만, 대중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 출가자 중심의 불교에서 재가자 중심의 불교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찰의 위치를 산중에서 도심으로 옮기고, 경전을 한글화하며, 참선수행을 대중들에게도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대중불교의 개혁 방향은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의 대중불교 운동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나타난다. 본 논문은 한국불교의 대중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의 불교운동을 각각 검토해보고,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한국불교의 대중화 운동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근대 한국불교의 대중화 운동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불교를 만들기 위해 근대의 선지식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불교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 가운데에 중요한 인물로는 한용운, 백용성, 소태산이 있다.

1) 백용성(1864-1940)의 대중화 운동

1900년부터 용성스님은 곳곳을 다니며 수행을 하고, 대중 법회를 열어 불교 강의를 하고, 참회수행법회와 염불수행법회를 주관하며 대중과 소통하였다. 그는 특히 염불수행이 참된 나를 바라보는 중요한 수행법이라 권장하며 해인사에서 많은 염불수행법회를 열어 지도하였다. 1912년에 용성스님은 서울로 올라와 '조선 임제종중앙포교당'에서 매주 설법을 하고 시민선방을 운영했으며, 1920년에 종로에 대각사를 세우고 본격적인 대중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대중화 운동은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던 당시에 함께 수감된 기독교인과의 교류하면서 개신교의 대중친화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개신교인들은 한글성경을 읽고 한글 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였었다. 그래서 용성스님은 주요 경전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그가 번역한 한문 경전들은 『신역대장경금강경 강의』, 『수능엄경 선한연의』, 『조선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 『대승기신론』, 『선한문역 선문촬요』, 『천수경』 등이 있다. 그리고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법회에서 풍금을 치고 개신교회식 찬불가를 불렀다. 1927년 간행된 『대각교의식』에는 최초의 서양식 찬불가인 '왕생가' '대각가' '권세가' 등이 실려있다. 찬불가를 부르는 등 파격적인 포교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용성스님은 불교의 기본 내용은 지키고자 하였다.

대중화 운동의 실천적 방식에서는 개신교의 장점들을 흡수했지만,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다. 그는 불교의 핵심이 복을 얻거나 내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안의 대원각성(大圓覺性), 즉 불성을 깨쳐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각교를 세워 불법을 펼쳤다. 그래서 대각교의 신도들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복과 미신을 타파한 불교신도가 되기를 바라고, 대각교의 성인들 앞에 공양하고 기도할 때는 일체유정동물, 즉 감정을 지닌 모든 동물, 모든 중생들이 고통의 바다인 이 세상으

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 대각성인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랬다.

또한 불교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며 북청에서 금광을 경영하였다. 선농일치를 이야기하며 만주지역에는 협동조합을, 경남에서는 화과원이라는 과수농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는 데에는 엄격하여서 1920년대에 총독부에 승려의 대치식육을 금해달라는 건백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1936년경 대각교는 총독부에 의해 해체되었지만, 그의 불교 대중화의 의지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졌다.

(2) 한용운(1879-1944)의 대중화 운동

한용운은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급진적 불교 개혁을 주장했던 개혁가였다. 1913년 출판한 「조선유신론」에서 한용운은 불교가 현시대에도 의미 있는 철학임을 강조하고, 내부적 문제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불교사상이 근대사상의 핵심 가치인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관과 평등주의적 시각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사회진화론의 경쟁적 불평등의 세계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불교사상의 유용한 측면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청에 맞는 불교로 바꾸기 위해 그는 미신의 타파와 염불당을 폐쇄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참선수행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산 속의 사찰의 도심포교당을 세우고, 승려들의 삶을 시대에 맞게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대에 맞게 승려들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는 시대에 맞는 신식교육의 제공, 탁발이 아닌 사찰의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나아가 대중을 이해하기 위해 승려의 결혼을 허용해야한다고 하였다. 한글경전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한용운도 1914년에 불교 경전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불교대전』을 출판하였다. 『불교대전』은 불교 경전 중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 모은 책으로, 여기에 인용된 경전들은 『화엄경』, 『열반경』, 『유마경』, 『법구경』, 『대승기신론』 등 불교의 주요 경전들이었다. 한용운은 대중들과 좀 더 함께 하고,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불교 개혁을 추구했다.

3) 소태산(1081-1943)의 대중화 운동

원불교를 개창한 소태산은 승려로 수계받은 적은 없지만, 깨달음 이후 자신의 깨달음의 내용이 불교의 가르침과 같다고 하여, 불법연구회를 창설하고, 불교경전에 근거

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폈다. 그는 자신의 운동을 불교운동으로 보았기에 기존의 불교의 문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불교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조선불교혁신론』에서 조선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의 네 가지로 보았다. 새로운 불교는 ① 외방의 불교에서 조선의 불교로 ②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③ 분열된 교화과목을 통일하기로 ④ 등상불(等像佛) 숭배를 불성일원상(佛性一圓相) 숭배로 바뀌어야 한다. 전문 수행자 중심의 불교를 대중불교로 바꾸기 위해 그는 한글경전, 사찰의 도심위치, 어느때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상 속의 무시선법(시작이 따로 없는 선법)을 주창하였다. 이외에도 값비싼 불상 대신 불성을 상징하는 일원상을 그리고 수행하게 하여, 우상숭배를 피하고, 부처와 하나되는 마음수행에 집중하게 하였다.

근대 불교의 대중화를 주장했던 세 사람 모두 대중들이 선뜻 다가오기 어려워하는 불교를 대중들의 눈높이와 삶의 방식에 맞는 불교로 개혁할 것을, 전문가들보다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불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상월조사(1911-1974)와 천태종의 대중화 운동

1) 상월조사의 생애와 활동

천태종의 중흥조인 상월조사는 어릴 적부터 실존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1925년, 15세가 되던 해 어린 준동(상월조사의 세속 이름)은 좁쌀 7되를 들고 삼태산에 들어가 100일간 밤을 새워가며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고 천수다라니 수행을 하였다. 그가 집중수행을 결의한데에는 그가 살던 삼척시 노곡면 지역에 은둔승려가 많았으며, 천수다라니 주송수행을 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²⁾ 100일의 수행을 마친 이후 그는 10여 년 간 국내 유명 사찰을 찾아다니며 선지식을 만났었으며, 이후 1930년에 중국으로 구법순례의 길을 떠났다. 6년 동안 그는 오대산의 문수도량, 아미산 보현도량, 관음성지가 있는 보타락가산, 화엄성지인 청량산, 천태산 국청사 등을 방문하며 관음신앙과 천태종에 뜻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1936년, 26세에 귀국하여 9년간 강원도와 소백산 일대에서 수행을 하며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도

2) 김세운 2006, 670-671.

왔다. 그의 뛰어난 치유능력으로 인해 근방의 많은 아픈 이들이 찾아왔었으며,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 가운데에 제자가 되어 함께 머문 이들을 중심으로 수행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상월조사는 제자들과 함께 천수다라니 주송을 용맹정진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³⁾ 큰 깨달음을 얻기 일주일 전, 천수다라니 주송 중에 한밤 중에 상서로운 빛이 비쳐 수행처가 환해졌다. 이후 계속 수행을 하다 새벽 3시에 벼락같은 소리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동천(東天)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일월(日月)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내가 탄생했다’라고 깨달음을 선언하였다.⁴⁾ 그날이 1951년 12월 28일이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3일 밤낮 쉬지않고 설법하였다. 이후, 성화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법회를 열고,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1966년 8월 30일 천태종을 중창하였다.

역사적으로 천태종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소개된 이후, 조선 초기 선교양종의 통합 과정에서 선종의 한 분파로 관리되면서 그 맥이 끊어져 있었다. 김세운의 연구에 의하면, 상월조사가 끊어졌던 천태종의 맥을 이어 창종한 이유는 의천대사의 천태종 창교 개창의 이념이 당시 사회현실에 부합된다는 판단에서였다.⁵⁾ 한국천태종 창종시 발간된 『개종이념과 교지요강』에 보면, 천태종 개종 취지는 근대적 불교를 건설하고, 종단간의 분열을 통합하고, 누구나 신앙하고 수행할 수 있는 대중 중심의 불교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근대적 불교와 대중 중심의 불교는 근대 시대 이후 불교계 내에 이어진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으며, 분열된 종단의 통일 부분은 김세운의 지적처럼, 해방 이후 벌어진 종단 내 대처비구 분쟁에 대한 응답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의천대사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개종이념과 교지요강』에 의하면 의천대사는 국가를 위해 불교를 개혁하고 화쟁사상으로 불교를 통일하였으며, 한민족에 맞는 창조적 불교를 세워 종합적 불교를 세워, 교관점수를 강조하고, 호국을 위한 간경사업 등을 행하였다. 즉, 의천대사의 당 시대에 맞추어서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개혁을 통해 분열된 불교를 통일한 것이 1960년대 상월조사가 인식한 문제와 맞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천태종의 창종시 공식 명칭은 대각국사 의천의 대각의 이름을 따와 대각천태종이라고 하였다. 공식

3) 김세운 2016, 38-41.

4) 김세운 2016, 39-40.

5) 김세운 2016, 50-52.

적인 기록에 의해서는 이처럼 불교계의 분열과 호국불교가 중요했던 시대상의 반영으로 천태종이 창종되었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종이념과 교지요강』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실행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천태종과 천태종은 관음신앙에서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천태종은 천태 지의 때부터 관음신앙과 함께 해왔다. 지의는 관세음보살을 큰 자비를 바탕으로 중생들의 요구에 따라 도움을 주면서 그들을 일불승으로 이끄는 원교의 보살이라고 보았다.⁶⁾ 지의는 청관음참법을 통해 죄를 참회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일상 속에서 생각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자재로 삼매에 드는 수자의 삼매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두었다.⁷⁾ 그의 관음 수행법은 이후 사명시대에 이르러서는 『천수경』에 의거한 대비참법으로 변화한다. 이후 이 수행법이 고려시대에 전파되어 한국불교의 주요 수행법으로 자리잡았다. 상월조사도 천수다라니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수행적인 면에서도 천태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천태종을 창종하면서 상월조사는 종단의 3대지표와 3대강령을 제시하고, 『천태종성전』을 간행하였고, 1974년 입적하기 전까지 10여 년 간 천태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천태종은 현재 167만 명의 신도를 가진 교단으로 성장했다.

2) 상월조사의 대중화 운동

상월 대조사의 대중화 운동의 큰 특징은 대중을 위한 쉬운 수행법과 재가자와 출가자의 차이가 타종단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천태종의 3대지표에서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3대 지표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생활화, 애국운동의 전개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불교 - 가람불교에서 민중불교로
- 출가불교에서 재가불교로
- 전수불교에서 통속불교로⁸⁾
생활불교 - 기복불교에서 작복불교로

6) 오지연 2022, 266.

7) 오지연 2022, 274.

8) 『천태종성전』에서 3대지표의 요지를 제시할 때와 설명할 때 세 번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요지를 제시할 때는 ‘염세주의 불교에서 구세주의 불교’로 되어 있다.(p.386) 여기에서는 설명부분의 내용을 따랐다.

- 우상불교에서 실천불교로
 - 유한불교에서 생산불교로
- 애국불교 - 국민도의 재건에 주력한다.
- 사회정화운동에 노력한다.
 -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 한다.
 - 민족중흥과업에 헌신한다.

대중불교와 생활불교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들은 근대 불교운동가들이 제시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당시에 대중불교를 위해서, 출가자 중심의 불교를 재가자 중심으로 바꾸기를 위해 한글경전을 만들고, 재가자들에게 참선수행법을 가르치고, 사찰의 위치도 산속에서 도심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생활불교를 위해 불상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의 불성을 깨닫게 하는 수행을 강조하였으며, 수행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전과 다른 점은 애국불교이다. 이는 독립 이후 국가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된 지표라 할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지만, 대중불교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대중들 삶에 밀착한 생활불교의 이념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는 데 기여하는 애국불교도 당시 대중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기에 대중불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천태종에서 이야기하는 대중불교의 개념은 그 의미가 좀 더 좁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1. 가람불교에서 민중불교로: 재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절을 본위로 하여 그 절에 가야만 불교가 있고 절을 떠난 불교는 없다고 생각한 가람불교의 관념을 처부수고 불교는 온 인류의 것, 사회의 것이라는 원칙에서 특히 민주(民主)시대에서의 온 국민대중이 같이 믿고 실천하는 불교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2. 출가불교에서 재가불교로: 재래 우리나라 불교는 세속에 떠나서 입산수도해야만 불교인이 되고 세속에 있는 재가자(在家者)는 불교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오늘에는 진리는 온 인류가 평등하게 알고 배우며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가 본위의 불교를 재가본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3. 전수불교에서 통속불교로: 재래 우리나라 불교는 전문적으로 불교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가만이 하는 불교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불교는 알기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

9) 『천태종성전』 396-397.

려운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리는 태양과 같이 그 빛이 온 누리에 고루 전달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전문적이고 특수한 불교진리의 전달방법을 버리고 일반이 다 같이 믿고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종에서도 옛적 중국적인 천태교리와 실천법은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워서 일반인은 알기도 어렵고 믿고 실천할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그 교리와 실천법을 가장 평이하고 통속적인 것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특히 실천법이 그러하다.

위의 설명으로 볼 때 대중불교의 핵심은 기존의 출가자 중심, 사찰 같은 종교기관 중심, 전문가 중심의 불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천태종은 24시간 사원을 개방하고 있고,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 가운데서 누구나 쉽게할 수 있는 관음염송 수행법을 중심 수행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현재는 관음염송으로 정착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다양한 다라니 수행을 시도했었다. 천수다라니 주력수행과 천수경 독송, “내가 뭐냐” “대방광불화엄경”을 외우기도 했다가 ‘궁궁강강,’ ‘궁궁을을강강’ 같은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준제다라니나 불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등 다양한 염송 수행을 했었다.

천태종의 관음염송은 마음을 집중하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계속 소리내서 부르는 것이다. 자세는 결가부좌 자세를 고집하지 않고 편한 앉는 자세를 허용하고 있다. 단, 옆 사람의 염송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내는 소리에 집중해야한다. 목적도 관세음보살에 의탁하는 거나 발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운은 이러한 관음염송의 염송 수행이 정토종의 아미타불 수행과 밀교의 진언수행과는 비슷해 보여도 청명염불만 한다는 점과 자력신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한다.¹⁰⁾ 일반적인 염불은 수인과 관상을 함께 행하며, 종파에 따라서 불보살에 맞는 특별한 만트라를 행하기도한다. 그러나 관음염송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소리내어 염송하며, 깊은 집중의 삼매상태를 만드는 지(止)의 수행이다.

천태종에도 관법 수행이 있는데, 이는 불성을 관하는 것이다. 『성전』에 의하면, 불성은 우리 마음밭에 숨겨져 있으나 탐진치 삼독 등의 번뇌에 가리어 있다. 그렇기에 번뇌의 잡초가 우거진 마음밭을 갈아 엮고 부처의 종자인 불성을 심어 길러야 한다. 마음밭을 고르게 갈은 이후에는 불성의 다섯가지 성질인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를 관하는 오종불성관으로 불성을 길러야 한다.¹¹⁾

10) 김세운 2016, 67-68.

11) 『천태종성전』, 403.

그러나 일반 대중이 관을 행할 정도의 삼매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므로, 관음염송을 행하며 모든 업장을 제거하여 불성을 기를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천태종 신자라면 법회 때와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 때 관음염송을 행한다. 관음염송은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100일 또는 300일 백만번의 관음염송하는 것과 구인사에서 3일간의 집중적 수행을 권장하고 있다.

천태종은 수행공동체의 평등성을 강조하여 재가자와 출가자의 차별을 없앴다. 구인사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낮에는 함께 울력하고 저녁 때 수행을 한다. 수행시간 중에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반 까지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관음염송을 한다. 뿐만 아니라 계율에서도 그 차이를 없앴다. 전통적으로 불교신도는 오계를,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구족해야하는 데, 천태종에서는 승려도 일반인도 모두 십선계만을 수계한다. 다음은 천태종성전에 기록된 십선계이다.¹²⁾

1. 산목숨을 죽이지 않는다.
2. 남의 재물을 탐내어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다.
3. 간음하지 않는다.
4. 거짓말 하지 않는다.
5. 이간질하지 않는다.
6. 사나운 말을 하지 않는다.
7. 꾸며대거나 추잡한 말을 하지 않는다.
8. 간탐심을 버린다.
9. 진한심을 버린다.
10. 어리석고 지혜없는 짓, 샷된 소견을 버린다.

십선계는 기존의 불교 십선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기운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천태종의 교단에서도 십선법을 계율로 지켜왔다고 한다.¹³⁾ 십선계는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상월조사는 이를 불성의 다섯 가지 특성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¹⁴⁾ 예를 들어 살생은 자비의 불성을 끊으며, 도둑질은 복덕의 불성을, 간음은 청정의 불성을, 거짓말하지 않음은 진실의 불성을 끊어버린다. 그러므로 앞의 네가지 선업

12) 『천태종성전』, 455-458.

13) 이기운 2020, 54-59.

14) 『천태종성전』, 455-458.

을 행하면, 불성의 성질들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불성을 관하는 수행뿐만 아니라 계율의 수행을 불성의 특성이 드러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천태종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을 위한 불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태종의 세가지 지표와 대중화 운동은 천태종이 지향하는 불교가 개인의 깨달음만이 아닌 사회 속의 불교를 지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노인복지활동, 어린이, 장애인,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돌봄활동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4. 광덕스님(1927-1999)의 대중화 운동

1) 광덕스님의 생애와 활동

광덕스님은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하였고, 승려가 되었다. 야간대학인 한국대학교(현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던 중, 폐결핵으로 공부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어 박종홍 교수의 권유로 범어사에 휴양하기 위해 머물게 되었다. 당시 그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범어사에서 머물게 되면서 만난 하동산 스님(1890-1964)과의 대화가 그를 승려의 길로 이끌었다.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이 너라고 하자.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이 너라고 하자.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너는 뭐냐? 그것을 가져와봐라.¹⁵⁾

자신의 본래모습에 대한 선의 질문을 마주한 고쳐사(세속명: 고병완)는 답을 찾기 위해 안거에 참여하며 수행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바로 출가하여 사미계를 받아야 했으나, 온전하지 못한 건강으로 고쳐사는 계를 받기 주저하여 행자로서 10년간 생활하였다. 그 동안 신소천스님(1897-1978) 을 만나 금강경구국구세운동이라는 대중화 운동에 동참하였다.

소천스님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으며, 1952년 용성스님을 스승으로 삼아, 동산스님

15) 김광식 2009, 82.

에게 사미계를 받아 출가하였다. 동산스님은 근대 시대에 불교 대중화를 위해 힘썼던 용성스님의 제자이다. 소천스님은 『금강경』의 불이사상이 사상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금강경』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130여 회의 강연을 열었다. 광덕스님은 『금강경』을 공부하고, 소천스님을 도와 원고를 정리하고 법회에 참여하면서 이 구국운동에 동참하였다. 이 때 1년간 진행한 금강경 강의를 중심으로 한 법회를 광덕의 첫 포교 운동으로 꼽는다.¹⁶⁾ 악화된 건강으로 광덕스님은 범어사와 금정사에서 머물게 되었지만, 소천스님과의 인연은 지속되었다. 1956년 신소천 스님이 대각사 주지로 계실 때 고쳐사였던 광덕스님은 백용성스님의 대각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신행단체인 대각회 회장직을 맡아 대각사상 운동을 하였다.¹⁷⁾ 정기법회를 꾸준히 이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다시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기장의 포교당에서 머물기도 하였다.

1960년, 구족계를 받아서 승려가 되었다. 승려가 된 이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며 범어사와 종단의 일을 돌보았다. 1965년 서울 봉은사 주지일 때, 봉은사에 머물던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부 학생들의 수행과 공부를 지도하였다. 1970년에는 총무부장에 취임하여 종단일을 했다. 그러나 전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1974년 11월 1일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 잡지인 월간지 『불광』을 창간하여 불광운동을 시작하였다. 대각사에 머물면서 불광지를 발간하고, 1975년 10월 16일 불광법회를 시작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대각사 법당 앞 마당에서 법회를 하였다. 초기에는 금강경 강의를, 이어 반야심경, 보현행원품을 강의하였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구도법회를 열어 철야정진하는 시간도 가졌다. 늘어난 신도수와 함께 1982년 잠실에 불광사를 건립하여 불광 반야바라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불교 대중화운동에 한 획을 그었다. 1999년 입적 때까지, 45년간 광덕스님은 길을 잃어 헤매는 대중들 안의 불보살을 일으켜 개인의 성장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불광운동을 이끌었다.

2) 광덕스님의 대중화 운동

광덕스님의 대중화 운동은 불광반야바라밀 운동으로, 불교를 전하는 포교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불광』 잡지의 발간이었다. 『불광』 창간

16) 김재영 2000, 208.

17) 이후 대각회는 1969년 법인으로 등록되었고, 동헌스님이 초대 이사장, 광덕스님이 2대 이사장직을 맡았다.

호에 실린 「순수불교선언문」에는 그의 불교와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그의 운동이 나아갈 바가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이 보신 바로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상관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절대와 자존자이며 무한자며, 창조자다. 일체신성과 존엄과 가치와 권위는 그로부터 유인한다. 그것은 인간이란 구극의 진리인 불성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 주위에는 감각과 물질위주-유물주의의 망령이 폭풍처럼 우리의 시계를 흐리게하고 지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가치의 겁탈이며 행복의 포기이며, 인간의 자기부정과 통한다.

우리는 참으로 반야, 지혜의 눈을 크게 떠야한다. 물질과 감각으로 착색된 미혹에서 벗어나 인간실상을 바로보고 인간복지를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넘치는 힘과 충만한 공덕을 보고 무한의 지혜와 용력을 발현해 이 땅 위에 평화번영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해야겠다. 이것은 인간본연의 영광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일이다.¹⁸⁾

그의 문제인식과 포교의 목적은 분명하다. 인간은 본래 빼앗길 수 없는 광명의 불성을 지닌 존재인데, 물질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재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상을 제대로 보고 본래의 밝은 빛을 회복하여 스스로도 행복하고 사회의 평화를 돕는 운동, 불광 반야바라밀 운동을 제안한다.

광덕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일반적인 의미의 보살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성과 거의 동일하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어에서 반야바라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육체생명이다,’ 범부생명이다, ‘한계조건 속에 갇혀진 생명이다,’ ‘유한생명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자기생명에게로 돌아가자는 수행이 참선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필경 밝혀진 부처님의 세계가 반야바라밀입니다. 『전등록』에 나오는 어느 조사 스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하반야바라밀.”

”어떤 것이 법입니까?”

18) 광덕 1974, 14-15.

“마하반야바라밀.”

“어떤 것이 해탈의 법입니까?”

“마하반야바라밀.”

무엇이라 물어도 평생을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일체 제불의 위신력, 제불의 서원, 제불의 자비, 내 생명과 함께하고 있는 반야바라밀의 진리에서 첫째 마음이 항상 밝혀져 있음을 알아야겠고, 둘째 일심으로 염하고 행하는 곳에 진리의 광명이 넘쳐 나고 위신력이 넘쳐 나서 장애가 소멸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이 갈 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¹⁹⁾

광덕스님에게 마하반야바라밀은 수행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본래면목이며, 석가모니불이며, 진리이며,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이다. 그가 마하반야바라밀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깨달음이 금강경 독송을 한 후 얻은 반야사상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반야사상은 모든 현상이 연기적으로 존재하여 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반야를 통해 정견을 세우고, 이에 대한 확신과 바른 이해를 갖추어 반야적 대행을 실천할 것을 제시하였다. 반야 정견이란 미혹된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계의 차별상을 벗어나 부처의 눈으로 진리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한다. 반야정견으로 보면,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고 타인의 생명과 내생명에 차별이 없는 무량공덕 생명이다. 부처의 위신력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은 부처의 위신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의 생명의 빛으로 행동할 때, 부처의 마음이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야대행이다.

그에게 있어 대행의 구체적 실천은 보현행원이다. “내 생명, 부처님 생명, 무량공덕 생명,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라는 광덕의 반야활구는 보현행원이 내 생명인 부처님의 생명을 사용하는 수행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 보현행원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는 신도공동체를 법등이라는 작은 모임들로 나누고, 법등의 일원으로서 신도들이 지켜야할 수칙인 법등십과를 제시하였다.²⁰⁾

19) 광덕 1991, 399-403.

20) 1976년 7월, 법회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이때는 나무마하반야바라밀의 한글자씩 따서 10개의 법등을 나누었고, 1979년에는 지역중심으로 동서남북, 중앙의 5개 법등으로 체계화 하고, 이후 연령별, 활동별에 따라 사리불법등(대학생), 바라밀법등(합창단)등의 법등이 추가되었다. 법의 등불을 밝혀 주변에 전한다는 취지에서 법등이라 이름한 것이다(김재영 2000, 344-352) 이러한 법등의 구조는 가톨릭의 신도관리 체계의 영향으로 보인다. 가톨릭에서는 지역별로 구역을 나누어 신자들의 정기적 모임이 있다.

1. 조석으로 법등일과를 지키고 부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 하루 세 번 이상 합장하고 “나는 불보살님과 함께 있다. 나는 건강하고 반드시 행운이 온다.”라고 선언합니다.
3. 매일 조상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4.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로 대하고 무엇으로든 도와드릴 마음을 갖습니다.
5. 공공이나 대중사에 앞장서고 무슨 일이든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합니다.
6. 매일 법등 5서를 읽고 전법을 실천하고 법회에는 반드시 출석합니다.
7. 자기 법등과 법등가족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연락을 가지며, 법등 가족 늘리는 책임을 다합니다.
8. 병든 이나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반드시 기도하고 돕습니다.
9. 자기의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합니다.
10. 우리 법등 가족은 감사, 참탄, 참회, 전법을 신조로 삼고 법등으로 호법하고 호국할 것을 명심합니다.

법등일과라 하는 것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이다.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할 때는 바른 자세에서 합장을 하거나 대살바야인을 만든 뒤, 눈을 감고 부처님과 함께 하며 그 위신력과 공덕이 넘치고 있음을 관한다. 일체 소원이 이루짐을 믿고 환희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하 반야바라밀을 한 마음으로 염송한다.²¹⁾ 이렇게 염송한 뒤, 부처님, 불보살, 조상과 부모님,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환희, 감사, 찬탄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생명의 숨결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만 본래 부처의 생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에게도 법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전하는 것이 최상의 보시며 구극의 자비면 최고의 반야대행이며 무상의 전법륜이며 보불은이며 공덕을 당기는 일이다. …… 복 받으려거든 모름지기 법을 전하는 것으로 믿

21) 김재영 2000, 202.

음을 삼자. 염불 일구, 한줄의 법어라도 정성을 다해 이웃에게 전하자.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정에 복을 가득 실자. 나라와 사회에 밝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자. 전법이 믿음의 실질인 것이다.²²⁾

법을 전하는 행위는 본래부처의 생명의 힘을 여는 길이며, 공덕을 쌓는 길이다. 광덕스님의 불교대중화는 불교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 전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했기에, 이처럼 전법을 믿음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다음의 다섯가지 서약을 매일 마음에 새긴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은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보현행원은 이렇게 전법을 통해서 완성된다.

광덕스님은 개개인의 전법활동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새로운 체계적인 포교활동을 제시하였다. 그의 포교활동의 특징에 대해 김재영은 대중의 눈높이와 소망에 맞춘 대중중심포교라 하며, 그 내용들을 문서포교, 찬불가포교, 의식포교로 분류하고 있다.²³⁾ 문서포교를 통해 다양한 역경작업들을 통해 대중들이 쉽게 불교 교리를 접하게 했으며, 찬불가 포교를 통해 최초의 불교 합창단을 만들어 다양한 찬불가를 발표하고, 찬불가 공연을 하며 찬불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두 작업은 이미 용성스님이 시도했던 포교방식이지만, 광덕스님이 이를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에게 확산시켰다고 할 수 있다.

광덕스님의 가장 개혁적인 포교활동은 의식포교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법회를 주관하는 사제의 역할을 재가자들에게도 확대하였다. 신도들에게 목탁치는 법을 가르치고, 연화부라는 재가 대중들의 의식전담 그룹을 편성하여 의례와 염불을 주관하게 했다. 전통적으로 승려만 해오던 포살법회를 대중들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매월 첫째 일요일 포살법회로 정하여 『포살요목』에 따라 법회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외에 혼례와 상례, 제례를 재가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예식으로 정리하였다. 불교식 결혼식을 시도한 것도 일찌기 용성스님이었으나, 광덕스님에 의해 더 쉽게 정리되었다.

김재영은 강조하지 않았지만, 광덕스님의 핵심포교는 공부포교라 할 수 있다. 교육포교가 아닌 공부포교라 표현한 것은 재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22) 광덕 1975, 17.

23) 김재영 2000, 222-229.

매월 발간되는 불광잡지, 정기적 강연법회와 수행법회를 통해 불교 교리를 함께 깊이 있게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였다. 체계적인 법등조직을 통해 모임의 지속성에 힘을 보탰다.

광덕스님이 이끈 불광운동은 처음으로 반야바라밀을 대중에게 알렸으며, 인간의 무한 능력을 믿는 인간중심의 대중불교 운동이었고, 불교의 진리는 전하는 법등운동을 강조하며, 한국불교의 대중화 운동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5.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의 대중화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은 비슷한 시기에 대중불교를 설파한 이들이다. 이들의 대중화 운동은 분명 다른 결의 운동이지만, 불교운동이기에 공통점도 존재한다. 그러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인간 긍정의 불성 사상

두 운동은 시작점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래모습에 대한 긍정성에서 출발한다. 천태종 성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광산에 금강보석의 불성이 있으며, 이를 개발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⁴⁾ 광덕스님은 인간 안의 무한한 광명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며, 이 광명이 있음을 수용하여 광명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불광운동을 이끌었다.

내 안의 불성은 『법화경』에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이라는 이야기에서도 나오며, 인간의 본래 모습이며, 모든 생명과 모든 공덕의 근원을 말한다. 아시아 불교의 모든 종파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이며, 종파와 승려에 따라 불성을 부르는 표현도 본각진심, 불심, 실제 등 다양하다.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 종파에 따라 불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 천태종은 성구설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부처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둘이 섞여 있다. 화엄종이나 선종에서는 마치 구슬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것처럼 불성의 밝은 성품이 번뇌에 의해 덮혀서 빛이 가리워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천태종은 마음 속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개발해야하는 것

24) 『천태종성전』, 412.

이고, 화엄종이나 선종은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선종에는 먼지를 밖에서 닦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점수와 불성의 빛이 있음을 믿어 그 밝은 빛으로 허상인 먼지를 사라지게 하는 돈오의 두 방식의 수행법이 있다.

이러한 역사성을 계승한 상월조사는 천태종이기에 마음속의 번뇌잡초를 제거하여 금강보석을 개발할 것을 강조한다. 반면, 광덕스님은 선종이기에 불성의 광명을 강조하며, 불성의 빛으로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수행을 우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에 앞서 불교대중화를 위해 힘썼던 백용성, 한용운, 소태산은 모두 “깨달음을 위한 수행”은 강조했지만, 개인 내면의 불성의 힘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은 인간 내면이 있는 불성의 무한한 힘에 대해 긍정하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전쟁, 분열, 빈곤이라는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살아내야 하는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했던 그들의 발원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불교는 이렇게 당시 대중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손쉽게 할 수 있는 염불 수행

둘 다 기본적 수행의 모습은 염불과 다라니 수행이다. 한국 천태종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수행을 하며, 불광운동의 수행에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한다. 천태종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지 않고 이름만 부르는 칭명염불이지만, 소리에만 집중하기에 오히려 다라니 수행에 가깝다. 반면, 불광사의 마하반야바라밀은 다라니 수행이지만, 때로는 마하반야바라밀을 주송하면서 마하반야바라밀의 빛을 관하거나, ‘마하반야바라밀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잡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라니 수행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일 첫 단계에서 하는 수행의 방식은 다라니 수행이다.

다라니 수행은 대중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기에 한국 불교사에서 매우 사랑받은 수행법이다. 종단과 상관없이 행하는 천수다라니 수행은 상월조사, 광덕스님, 용성스님도 모두 즐겨하던 수행이었다. 상월조사도 삼태산 기도 때,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 기도로 정하기 전에 신도들과 함께 천수다라니 기도를 하였다. 광덕스님도 출가 전, 집중기도를 할 때 천수다라니 기도를 했으며, 용성스님은 천수다라니 기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하는 법회도 열었다. 다라니 기도는 이처럼 잠념을 가라앉히고 의식을 집중하며 환희심을 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수행이기에 많은 수행자들이 해온 수행이다.

천태종의 관음기도의 경우 전통적인 청명염불이 있어왔으나, 절을 하지 않고 편한 자세로 앉아서 자신의 염송 소리에 집중하여 밤새워서 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불광사의 마하반야바라밀은 이전에는 없던 다라니이다. 반야공사상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은 의미가 있다.

3) 재가자와 수행자의 평등

둘 다 대중화운동을 행하면서 재가자와 수행자 간의 차별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천태종은 매우 과격적으로 계율의 차이 없이 재가자든 수행자든 십선계를 지키게 하였다. 십선계에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이 없고, 재가자들도 함께 지키는 불살생이기에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전통 불교에서 문제가 되는 음주와 식육이 과계의 요건이 되지 않기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계율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중과 같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한용운이 지향했던 재가자와 승려의 간극을 줄이는 좋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불광사는 수계는 전통의 방식을 따라서 승려와 재가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재가자들도 평등한 도반으로 대우하고 있다. 승려들만 행했던 포살법회를 월 1회 재가자들도 행한다. 또한 승려들만이 주재하던 법회를 재가신도들도 주재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그 역할을 늘렸다. 스님이 없이 재가자들이 모여도 염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승단 내 재가자의 역할을 늘이는 것은 현대불교의 추세인데, 대중불교를 표방한 두 단체 모두 선구적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4) 더 나은 사회 만들기

두 단체 모두 개인의 수행과 깨달음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방 이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바램과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태종은 3대 강령 속에 밝은 자기의 개발, 밝은 생활의 창조 외에 밝은 사회의 실현이라는 모토를 제시하고 있다. 밝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 서로 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6화와 중생들이 불법을 잘 받아들이길 수 있게 행하는 사섭법을 실천하고, 복전을 일군

다. 6화란 승단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몸, 말, 생각의 화합과 견해와, 계행, 이익의 조화를 말한다. 천태종은 교단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서로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불광운동은 부처의 광명으로 바라밀 국토를 성취하고자 했다. 바라밀국토란, 반야사상에 기반하기에, 대립적 사고를 넘어서서 모든 존재들이 연기적으로 존재함을 수용하고, 모든 존재들간의 부처광명을 긍정하는 세계이다. 해방 후 심각한 좌우 갈등을 목도하고 금강경독송운동을 펼친 소천스님이 꿈꾸었던 온갖 대립과 투쟁이 사라진 평화의 세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법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 불광운동의 특징이다.

둘 다 개인의 수행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천태종은 개인의 화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불광운동은 전법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6. 나가며

한국불교의 대중화 노력은 근대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용성스님은 불교의 핵심을 수행을 통한 깨달음으로 보고, 대중의 깨달음을 위해 참선 교육을 하고,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바꾸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불교예식 개혁을 하였다. 한용운도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도심포교를 강조하고, 승려들이 대중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소태산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원상 수행법을 제안하며, 삶과 밀착한 새로운 불교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근대 시대의 대중화 노력은 해방 이후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에게 계승되었다. 대중화의 핵심은 대중들의 삶과 눈높이에 맞는 불교의 소개와 승단 내에서 재가자들의 역할을 좀 더 부여하는 것인데, 둘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다. 상월조사는 대중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관음염송 수행법을 제시하였고, 재가자와 출가자에게 똑같이 십선계를 수계하는 방식을 통해 승려들과 재가자의 간극을 줄였다. 광덕스님은 대중들이 불교공부를 할 수 있게 『불광』 잡지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공부법회를 개최하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마하반야바라밀 다라니 수행을 제시하였다. 재가자들을 도반으로서 평등하게 대하여 포살법회참여, 불교의례 주재 등의 권한을 주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인간공정의 불성사상, 쉬운 염불수행, 재가자와 출가자의 평등성, 더 나은 사회의 건설이라는 네 가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불교의 대중화 운동은 기복불교에서 수행불교로, 승려중심의 불교에서 재가자 중심의 불교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변화해왔다. 근대 시대 때보다 현대 시대에는 재가자들이 수행과 교학공부, 사찰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 대중불교가 발전함에 따라 대중불교가 지향하는 방향은 대중을 위한 불교에서 대중에 의한 불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 천태종성전편찬회. 1971. 『천태종성전』, 대한불교천태종.
- 광덕스님 전집찬위원회. 2009. 『광덕스님 전집』 권1-10, 불광출판사.
- 김재영. 2000.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불광출판사.
- 오지연. 2022. 「천태종 관음신행의 변천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사연구』 22.
- 김세운. 2006. 「상월 조사의 생애와 교화 방편」, 『禪學(선학)』 15.
- _____. 2011. 「한국 천태종의 염불수행 전통과 그 계승」, 『禪學(선학)』 30.
- _____. 2016. 「上月 圓覺의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최원섭. 2022. 「금하광덕의 도심포교와 보현행원」, 『보조사상』 62(1).
- 이병욱. 2021. 「불교개혁론에서 바라본 대한불교천태종의 대중불교」, 『동아시아불교문화』 45.
- 김용표. 2013. 「상월원각대조사의 불교혁신관」, 『천태학연구』 16.
- 송준환(동욱). 2018. 「金河光德의 普賢行願思想과 實踐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Popularizing Buddhism: Insights from Korean Monks Sangwol and Gwangdeok

Lucy Hyekyung JEE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efforts to popularize Buddhism in Korea, spanning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contemporary tim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ontributions of Sangwol in Korean Tiantai Buddhism and Gwangdeok in Zen Buddhism. Through an analysis of key figures such as Baek Yongseong, Han Yongun, So Taesan, Sangwol, and Gwangdeok, the study explores the strategies employed to make Buddhism accessible to the masses and the subsequent adaptation of Buddhist practices and beliefs to suit the needs and circumstances of the general populace. While there are nuanced differences in their approaches, Sangwol and Gwangdeok share common ground in four key areas: promoting accessible Buddhist thought, facilitating meditation practices, advocating for equality between laypeople and monastics, and contributing to societal betterment. Sangwol introduced a method of Guanyin meditation tailored for lay practitioners, bridging the gap between monastics and laypeople by proposing shared observance of precepts. Gwangdeok Sunim's initiatives included publishing Buddhist literature for public consumption, organizing study sessions and meditation retreats, and granting laypeople the authority to partake in Buddhist rituals and ceremonies.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paper enriches our

understanding of the evolution of Korean popular Buddhism, illustrating its transition from a religion for the masses to one shaped by their active participation.

Key words: Popular Buddhism. Korean Tiantai Buddhism, Sangwol, Kwangdeok, Seon Buddhism